행복한 지방시대의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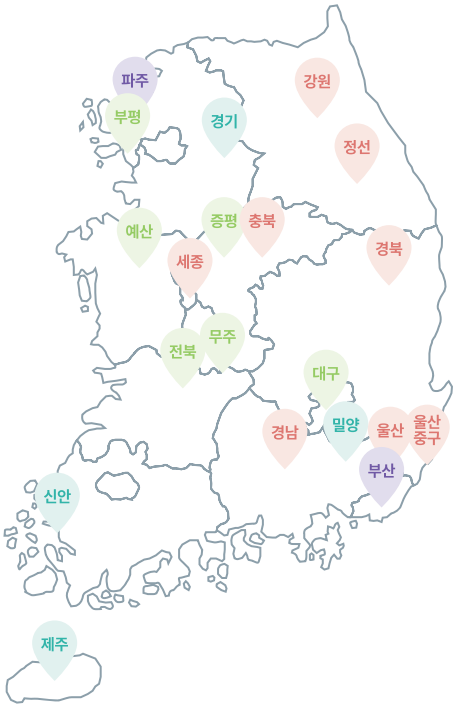
2022 균형발전
우수사례집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Keit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행복한 지방시대의 시작

CONTENTS



Part. 1
삶의 질 향상

강원도 012
재해에 강하고 친환경적인
솔바우마을 임도

강원도 정선군 026
사북 도시재생 뉴딜사업

충청북도 040
건강한 삶(Life), 생명력(Life)이 넘치는
좌구산 휴양림으로!

경상북도 054
이용자 맞춤형 농촌버스체계 구축으로
교통복지 획기적 개선하다!

경상남도 068
산림휴양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대국민 산림복지서비스 향상

울산광역시 082
울산여고 하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울산광역시 중구 096
산전마을 풍경의 재발견

세종특별자치시 110
부르면 달려갑니다,
세종의 효자버스 '두루타'

Part.2
주민참여

충청북도 증평군 126
역량강화로 점핑하는 증평,
균형발전으로 정평나는 증평!

충청남도 예산군 140
예산해봄센터로 주민과
소통의 문을 열다!

전라북도 154
깨끗한 고군산군도,
아름다운 어촌만들기로 명소화 붐 조성

전라북도 무주군 168
무주군 공동체 함양 및 역량강화
"무주군엔 곰고미가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 182
어르신들이 기억하고 청년들이
기록하는 "어울림마을 복현"

인천광역시 부평구 196
주민과 상인이 함께 만드는
동수단길!

Part.3
경제활성화

경기도 212
구도심,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주차난과 지역 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다

전라남도 신안군 226
퍼플섬! 낙도(樂島)로
변화된 모습 보라해!!

경상남도 밀양시 240
밀양숲속마을 경제적 자립화로
주민자치실현의 기반을 마련하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54
용이 살던 연못, 용둠벙 산책로 새단장

Part.4
공간활성화

경기도 파주시 270
잊혀진 연풍의 이름을 찾고
새로운 기억을 입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84
신선이 노니는 마을 정상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자! 신선마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이 새로운 활력을 얻고
대한민국은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게 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우동기

지역은 생생한 활력을
대한민국은 균형 있는 발전을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다양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일극화(一極化)라는 불균형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 상황은 교통·교육·문화시설 등 지역 간 삶의 질 격차를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와 전략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지역적으로 고르게 발전하지 않는다면, 이제 더는 발전할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균형발전을 위해 '자유와 공정'에 가치를 두고, 국가 불균형은 '생존과 소멸의 위기'이자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차별의 문제'로 인식하여 강력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기에 지역 균형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사명입니다. 그 시대적 사명을 이행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역량과 경쟁력을 키우는 균형발전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도하의 자립적 발전을 이끌어, 물리적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주민의 복지를 향상하는 정책입니다. 무엇보다 균형발전사업은 지역이 마주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관점에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 향상', '주민참여', '경제활성화', '공간활성화'가 그것으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정체성과 경쟁력을 키우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사업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사례집 책자를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2022년에도 지자체에서 수행한 포괄보조사업을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과정을 거쳐 사업성과가 돋보이는 우수사례 20편을 엮어 사례집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집에는 주변 환경이 개선되고 일터가 생겨나고 사람들이 찾아와 지역이 살아나는 그 성공의 증거가 담겼습니다.

사례집에 담긴 사례 하나하나는 많은 지자체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례집을 통해 지역이 경험한 도전과 그 성공이, 이 책자를 빌려 확산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이 새로운 활력을 얻고 대한민국은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게 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22년 11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균형발전사업 전문평가기관으로서
그 위상을 공고히 함과 동시에,
균형발전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원장
전윤종

지방시대를 열어갈 같이의 가치

지역과 지역을 잇는 임도가 개설되면서 이동의 편리성은 높아졌고, 황폐화되어 가던 지역은 도시재생으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는 지하공영주차장이 조성됐고, 아무도 사용하지 않던 공·폐가는 주민을 위한 휴게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모두 지난 2021년 균형발전사업으로 이뤄낸 소중한 성과입니다.

이처럼 지역이 이뤄낸 값진 결실을 보다 많은 지자체에 공유하고자, 20개의 사례를 모아 한 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례집에 담긴 생생한 사례는 '균형발전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통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주민이 가치를 모아 함께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균형발전이란 우리가 함께 만드는 가치이며, 이는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책자에는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한 지자체의 고민과 노력, 그리고 그 결실이 담겨있습니다. 그 결실은 한순간에 이뤄낸 것도 아니며,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사례집을 통해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더 나은 균형발전 사례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이자 소명입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균형발전사업 전문평가기관으로서 그 위상을 공고히 함과 동시에, 균형발전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발간과정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매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의 평가 결과 우수 사업 중에서 사업성과가 탁월하고 벤치마킹을 통해 상호학습이 가능한 사례를 중심으로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올해는 시도 지자체에서 추천받은 49개 사례와 정부 부처에서 추천받은 17개 사례, 총 66개 사례에 대해 평가자문단장을 비롯하여 사업종합평가에 참여한 분과장 등으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하였고 1차 서면평가, 2차 현장점검, 3차 최종평가를 시행하여 최종적으로 지역자율계정(지자체 추천) 20개 사례, 지역지원계정(정부 부처 추천) 8개 사례 등 28개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였다.

그 중 지역자율계정 우수사례 20개를 2022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집으로 발간하게 되었고, 우수사례 유형별로는 삶의 질 향상 8개, 주민참여 6개, 경제활성화 4개, 공간활성화 2개가 수록되었다.

포괄보조사업별로는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5개, 일반농산어촌개발 4개, 특수상황지역개발 2개,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2개, 주차환경개선지원 2개, 성장촉진지역개발, 임도시설, 해양및수자원관리, 농촌형교통모델, 도시형교통모델 사업이 각각 1개씩 수록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가 각각 2개,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가 각각 1개씩 선정되었다.

지역자율계정 우수사례

사례유형	지자체	우수사례명	포괄보조사업명
삶의 질 향상	강원도	재해에 강하고 친환경적인 솔바우마을 임도	임도시설
	강원도 정선군	사북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충청북도	건강한 삶(Life), 생명력(Life)이 넘치는 좌구산 휴양림으로!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경상북도	이용자 맞춤형 농촌버스체계 구축으로 교통복지 획기적 개선하다!	농촌형교통모델
	경상남도	산림휴양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대국민 산림복지서비스 향상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울산광역시	울산여고 하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주차환경개선지원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마을 풍경의 재발견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세종특별자치시	부르면 달려갑니다, 세종의 효자버스 '두루타'	도시형교통모델
주민참여	충청북도 증평군	역량강화로 점핑하는 증평, 균형발전으로 정평나는 증평!	일반농산어촌개발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해봄센터로 주민과 소통의 문을 열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전라북도	깨끗한 고군산군도, 아름다운 어촌만들기로 명소화 붐 조성	해양및수자원관리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군 공동체 함양 및 역량강화 "무주군엔 곰고미가 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대구광역시 북구	어르신들이 기억하고 청년들이 기록하는 "어울림마을 복현"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민과 상인이 함께 만드는 동수단길!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경제활성화	경기도	구도심,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주차난과 지역 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다	주차환경개선지원
	전라남도 신안군	퍼플섬! 낙도(樂島)로 변화된 모습 보라해!!	성장촉진지역개발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숲속마을 경제적 자립화로 주민자치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이 살던 연못, 용둠벙 산책로 새단장	특수상황지역개발
공간활성화	경기도 파주시	잊혀진 연풍의 이름을 찾고 새로운 기억을 입다	특수상황지역개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선이 노니는 마을 정상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자! 신선마을!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PART 1.

삶의 질 향상

강원도

재해에 강하고
친환경적인
솔바우마을 임도

강원도 정선군

사북 도시재생
뉴딜사업

충청북도

건강한 삶(Life),
생명력(Life)이 넘치는
좌구산 휴양림으로!

경상북도

이용자 맞춤형
농촌버스체계 구축으로
교통복지 획기적
개선하다!

경상남도

산림휴양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대국민
산림복지서비스 향상

울산광역시

울산여고 하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마을 풍경의
재발견

세종특별자치시

부르면 달려갑니다,
세종의 효자버스
'두루타'

강원 임도에 미래를 담다

우수 사례명

재해에 강하고 친환경적인 솔바우마을 임도



산림의 가치는 무궁무진하다. 임산물을 채취해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산림에서 나오는 목재 부산물은 건축 자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피톤치드를 맡으며 건강한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곳도 바로 산림이다. 이처럼 산림이 지닌 무궁무진한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산속에 만들어진 길 '임도(林道)'가 필요하다. 춘천의 작은 산골마을, 솔바우마을의 이야기는 바로 이 임도에서부터 시작된다.

지자체	강원도
소관부처	산림청
포괄보조사업명	임도시설
내역사업명	임도시설(간선임도)
우수사례유형	삶의 질 향상



산에 둘러싸인 마을, 솔바우마을

본 사업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선도산림경영단지'를 이해해야 한다. 선도산림경영단지란 산림청에서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산주의 동의를 얻은 500ha 이상의 규모화된 산림을 전문 경영 주체가 산주 대신 책임·경영하는 제도다. 무엇보다 이 제도는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사유림의 경영활성화, 주민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춘천시 사북면 송암리 솔바우마을 역시 2020년부터 선도산림경영단지로 선정되면서 775ha에 달하는 산림에 조림·숲가꾸기·사방사업·소득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특용수(음나무)를 식재했고, 단지 내 마을림에는 산마늘·표고버섯·더덕·산당귀 등을 재배함으로써 주민 소득에도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생겨난다. 바로 '임도'다.

선도산림경영단지 사업 추진 현황

사업명	면적(ha)	세부내용
숲가꾸기사업	70.21	21년 14.32ha / 22년 55.89ha
경관림조성사업		임도변 복자기나무 외 2건
조림사업	3.5	특용수(음나무)
조림지가꾸기사업	90.08	21년 49.92ha / 22년 40.16ha
소득사업 (선도산림경영단지 마을림)	3.3	산마늘 16,000주, 표고버섯 재배 원목 3,500본, 더덕씨 파종 75kg, 산당귀 36,000주, 취나물 24,000주, 눈개승마 12,000주, 두릅나무 500주
임목수확사업	3.5('21)	<2차사업활엽수 임지 직영벌채 사업> 원목생산 506t을 반출하여 벌채목 판매금액 43,352천 원 실적, 5,707천 원을 환원사업
	15('22 예정)	벌채 예정



1

특히 솔바우마을은 전형적인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른 사북면 지역과 비교해 개발이 늦게 이뤄졌다. 마을에 전기와 통신시설이 들어온 때도 1977년의 일이었다.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임도는 최근까지도 없었다. 임도는 산림경영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마을과 마을 간의 연결뿐만 아니라, 생산한 임산물을 효율적으로 운반하고 산불 등의 재해를 예방하는 필수 기반 시설이다. 그렇기에 산림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체계적인 임도망 구축은 기본 요건이다.

임도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 것은 송암리가 선도산림경영단지로 선정되면서부터다. 그렇게 2020년 송암리는 선도산림경영단지 내 집약적인 산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송암~가일 산촌마을을 연결하는 임도를 개설하기 시작한다.

1 선도산림경영단지 전경

사업 추진 체계

1. 노선 조사

- 임도 노선 조사, 선정
- 임도 설치 5개년 계획 반영 노선에 한함

사업소 및 시·군

전년도

↓

2. 산주 동의

- 산주 동의(사유림)

시·군

전년도

↓

3. 타당성 평가

- 임도 타당성 평가
  -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전문가 평가

강원도

전년도 7~8월

↓

4. 설계 및 시공

- 설계-시공(감리)-준공

사업소 및 시·군

연중

환경 친화적인 임도를 개설하다

먼저 솔바우마을은 '임도 설치 5개년 계획'을 세움과 동시에 노선 선정에 들어간다. 전체적인 임도 노선 계획을 수립하고, 어느 곳부터 차례대로 개설해 나갈지 결정해나갔다. 특히 노선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산주의 동의가 필요로 하는데, 이를 위해 솔바우마을은 임도와 관련한 기본계획을 읽기 쉽고 이해하기 좋은 책자로 발간했다. 책자에는 임도 개설을 통한 체계적인 산림 관리, 산림 사업, 소득 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이 실렸다.

특히 이 과정에서는 오랫동안 솔바우마을의 이장을 지낸 송암리개발위원회 홍성수 대표의 노력이 컸다. 직접 마을 산주를 찾아가 임도 개설을 설득하고, 임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어필했다. 이는 산주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자연스레 임도 개설에 대한 동의로 이어졌다. 이후 타당성 평가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설계와 시공에 들어갔다.

2



3



4



임도를 개설하기 위해 솔바우마을은 여러 시공 방침을 세웠다. 기존 작업로를 최대한 활용하고, 계곡부 훼손을 최소화해 계류 내 소생물권을 보호할 것. 산림사업, 산림 보호, 목재 반출을 고려해 노선을 배치하고 기계화 작업장을 설치해 임도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 무엇보다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임도를 설치하는 데 주력했다.

솔바우마을은 특성상 암반지역이 많은 곳으로, 임도 개설을 위해서는 발파시공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발파시공 시 주변 자연 환경이 훼손될 위험이 있어,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공 방법을 고려했다. 이를 위해서는 암반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다. 천공 작업을 위해 암질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천공 방향·깊이·화약량 등을 조절했다. 또한 땅을 파는 굴진 작업 시에는 소규모 진동제어 발파로, 진동을 최소화해 환경에 영향이 덜 미치도록 했다.

임도 현장 여건에 맞는 배수 체계 시설을 설치해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예산 절감 효과를 얻기도 했다. 임도에는 노면의 지지력을 유지하고, 임도에 유입된 물을 바깥으로 유도하는 배수시설이 필요하다. 솔바우마을의 임도 노선은 산정상부에 위치하고 있고, 암반 지역으로 배수관을 부설했을 시 산림 훼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집수 면적이 적은 지역의(0.1ha~0.6ha) 측구유수처리를 벤치플륨관으로 설치했다. 이는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2 산주 및 주민 설명회 개최를 통해 임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
3 암질의 상태를 면밀하게 파악한 후 화약 주입 실행
4 소규모 진동제어 발파로 주변 환경 훼손 방지



5

지장목과 발파석, 활용을 극대화하다

환경에 대한 고민은 시공에서뿐만 아니라, 시공 단계에서 발생한 지장목·발파석을 유용하게 활용함으로써 방점을 찍는다. 임도를 개설하면서 생산된 지장목은 특히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됐다. 쉼터 구간에 나무 의자를 만들어 사람들이 편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했다. 70t 규모의 원목은 송암리 마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12가구에 기부했다. '사랑의 땔감 나누어주기' 행사를 통해 진행됐으며, 일회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행사를 추진해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5 임도 개설 과정에서 생겨난 지장목, 취약계층에 기부
6 지장목으로 만든 나무 의자
7 측구 보호를 위해 발파석을 채움
8 사면에는 암성토 공법을 적용해 산사태 방지

발파 과정에서 발생한 발파석은 재해에 강한 임도를 만들기 위해 암성토로 활용됐다. 절토면이나 성토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면붕괴를 막기 위해, '암성토 공법'을 적용했다. 이름 그대로 돌로 지면을 채우는 방법이다. 집중호우 시 임도 노면과 측구가 침식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임도의 측구(옆도랑)에는 잡석을 채워 넣는 등 재해에 강한 임도를 개설했다. 이처럼 솔바우마을의 임도는 다양한 요소를 검토해 만들어진 최상의 임도가 되었다.

6





7



8



9



10

임도, 그 기능을 넘어

솔바우마을에 임도는 단순히 산림 경영 기반 시설로서 그치지 않는다.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테마형 임도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솔바우마을은 산림문화·휴양·레포츠 등 특정 주제에 맞춰 많은 사람이 찾는 특색 있는 테마 임도를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임도 노선 계획 단계부터 목적을 가진 임도를 만들기 위하여 실시 설계를 한 바 있으며, 그 시작은 '개적심폭포'로 갈 수 있는 노선을 개발한 일이다. 임도가 개설되기 전에는 마을 주민조차 쉽게 갈 수 없는 폭포였다. 하지만 임도 개설과 함께 지금은 누구나 찾아가 만날 수 있는 특색 있는 명소가 되었다.

한편, 솔바우마을은 임도 내에 있는 성황단, 베틀굴을 기점으로 하는 역사·문화형 트레킹로를 개발하여 산촌마을 경제활성화에도 적극 기여하고자 한다. 성공적인 추가 임도를 개설하기 위해, 주민·외부 전문가·산주·공무원·경영주체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발족하기도 했다.

임도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인 산불진화 기능도 빼놓을 수 없다. 2022년에 발생한 동해안 대형 산불 사례를 보더라도, 방화선과 진화차량 진입로로써 임도

9 송암~가일을 잇는 임도
10 임도 가는 길에 위치한 개적심폭포
11 산마늘 식재 중인 마을 주민들
12 표고 특화재배단지 전경

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한 바 있다. 산불이 발생하면 헬기 진화보다 지상 진화가 가장 우선이기 때문이다. 임도가 없다면 진화차나 소방차가 동원되더라도 화재가 발생한 곳으로 접근하기 어렵고, 불이 번지는 속도 역시 빠르다. 때문에 솔바우마을은 지속적으로 간선 임도를 신설해 나갈 계획이다.

솔바우마을에 임도가 개설되면서 생겨난 가장 큰 변화는 임산물 재배단지를 통한 경제활성화다. 솔바우마을은 임도를 통해 효율적으로 임산물을 재배할 수 있게 되었고, 작목반을 중심으로 한 생산 활동은 2022년 첫 수확을 앞두고 있다. 신라호텔 납품을 통해 약 3천만 원의 소득이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마을림 벌채를 통해서는 2년간 173백만 원의 목재 판매 실적을 올렸다. 이처럼 임도는 산촌 주민들에게 삶의 터전이자, 소득 창출의 원동력이며, 산불과 같은 재해를 예방하는 필수 기반 시설이다. 비단 산골주민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더 나아가 숲을 즐기기 위해서라도 임도는 꼭 필요한 기반 시설이다.

솔바우마을 앞으로는 쪽빛 강물이 흐르고 용화산과 화악산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져 있다. 앞으로 생겨날 테마 임도를 통해, 산림과 솔바우마을의 가치가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본다.

11



12



산림의 가치를 높이는 임도

❶ 임도의 필요성이 제기되다



솔바우마을 내
선도산림경영단지(774ha) 및
특화 임산물 재배단지(10ha)
생산 기반 시설 마련



산불 예방·진화를 위한
임도의 부재

❷ 전에 없던 새로운 방식! 우리 안에서 해결책을 찾다

실현 분야 1

임도 개설

→ 2021년 임도 3.02km 개설 완료
→ 2022년 1.3km 추가로 임도 신설 중



실현 분야 2

자연친화적인 시공

→ 암질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해 환경에 맞는 천공 방향·깊이 결정
→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굴삭기 브레이커 대신 소규모 진동제어 사용



실현 분야 3

임도변 폭포, 바위, 전설 등 지역 관광자원 활용

→ 개적심폭포, 성황당, 베틀굴 등으로 갈 수 있는 노선 개설



실현 분야 4

지역 특화 임산물 재배단지 기반 마련

→ 임산물 재배단지 1.56ha에 산마늘, 표고목 특화 단지 조성



❸ 임도를 통해 산촌마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엿보다

❶ 특화 임산물 식재를 통해 단기소득 창출기반 마련



산마늘
16,000 주
+
표고목
2,500 본 식재



산마늘
매년 **800** 만 원
(2023년부터 판매 수익 기대)



표고버섯
매년 **3,000** 만 원
(2022년 늦가을~2026년까지)

2021년 시범사업

❷ 임도연계 임목수확사업을 통한 산주소득환원



춘천시 사북면 송암리 산93
잣나무 벌채 **9.95** ha
벌채목판매대금 **130** 백만 원
산주환원 **23** 백만 원

2022년도

사업명
간선임도



추진 기간	2020년 1월 ~ 2021년 11월
사 업 비	739백만 원(지방비 222백만 원 포함)
주요 의제	– 선도산림경영단지(775ha) 및 특화 임산물 재배단지(90ha)의 생산 기반 시설 마련 – 산불 예방을 통한 산림재해 대응
사업 특징	– 현장에서 발생한 암석을 다양하게 활용 – 재해에 강하고 친환경적인 임도 개설 – 지장목을 지역 땔감 나누기로 활용하여 마을과 상생

주변 여행 관광지

명소 1.

아찔한 즐거움을 만끽하는 곳
소양강 스카이워크



소양강 위로 시원하게 뻗은 다리다. 전체 길이가 174m이다. 그중 156m 되는 구간이 투명 강화유리로 되어 있다. 교량 끝부분에는 원형 광장과 전망대가 있어 소양강 전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입구에는 아기자기한 포토존과 테라스가 있어 사진을 찍거나 잠시 쉬어가기에 좋다. 특히 일몰 후 화려한 조명으로 물드는 스카이워크는 더욱 아름다운 모습을 뽐낸다.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663

033-240-1695

명소 2.

이국적인 정취가 물씬
제이드가든 수목원



'숲속에서 만나는 작은 유럽'이라는 콘셉트를 가지고 있는 정원이다. 무엇보다 사계절 내내 각기 다른 식물을 만날 수 있다. 테마 정원은 총 26개나 된다. 이탈리안웨딩가든, 영국식보더가든, 코티지가든, 만병초원 등 테마별로 다양한 정원이 조성되어 있고 식재된 식물만 해도 무려 4,000여 종이나 된다. 개장한 이래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 '단, 하나의 사랑', '신사와 아가씨' 촬영지 등으로 알려지며 더욱 유명세를 탔다.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햇골길 80

033-260-8300

명소 3.

국내 최장 케이블카

삼악산 호수 케이블카



국내 최장 케이블카로, 춘천 삼천동에서 의암호를 가로질러 삼악산 정상까지 운행하는 케이블카다. 길이만 해도 무려 3.6km에 달한다. 삼악산은 춘천을 대표하는 명산 중 하나로, 오대산의 웅장함과 설악산의 아름다움을 축소한 듯한 모습으로 매년 10만 명이 찾는 관광 명소다. 기암괴석으로 이뤄져 걷기에 가파르지만, 케이블카가 생겨난 후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삼악산을 쉽게 오를 수 있게 됐다.

강원도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245

033-250-5403

명소 4.

천혜의 절경을 품은 절

청평사



오봉산 기슭에 있는 절로, 소양호에서 배를 타고 10여 분 정도 들어가야 만날 수 있다. 고려시대의 절로 고려 광종 때 영현선사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진다.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주변 자연 환경이 매우 뛰어나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공간이다. 청평사 입구의 큰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공주와 상사뱀의 조형물이 있고, 아홉 가지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는 전설의 구성폭포도 만나볼 수 있다.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오봉산길 810

033-244-1095